

# 父母와 大學生 子女의 價値觀과 價値傳達 研究

## A Study on Value Orientations and Transmissions between Parents and College-aged Children

木浦大學 家政學科

專任講師 金 慶 信

*Dept. of Home Economics, Mok-po National College*

Instructor; **Kyeong Shin Kim**

### <目 次>

I. 序 論

II. 理論의 背景

III. 研究方法 및 節次

IV. 研究結果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value orientations and transmissions between parents and college-aged children.

The specific objectives a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parents and children's value orientations.
2. To estimate value congruences and transmiss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3.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ree kinds of variables (demographic, family life, and expectation) on children's value orientations.

To study the generational congruences and transmissions, four kinds of questionnaire and matched samples of mother-daughter and father-son were used.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110 pairs and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are summerized as follows;

1. Significant value differences are found between parents group and children group.
2. Mother-daughter congruences are more than father-son congruences, but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low.
3. The variables selectively influence on children's value orientations.

### I. 序 論

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滿足感이나 幸·不幸의 判斷에까지 크게 關係되기 때문에 어느 人間 어느 狀況에서나 극히 중요한 것이다.<sup>1)</sup>

價値 혹은 價値觀의 問題는 그것이 行動의 方向

특히 한 個人이 그 社會 文化 價値觀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가 所屬해 있는 最初의 集團 즉 家族을 통해서이고 兒童의 動機, 態度, 價値觀, 人性의 形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그가 속한 家庭이 갖는 信念, 價値, 規範이므로<sup>2)</sup> 家族의 價値觀은 價値의 問題에서도 根本을 이룬다 할 수 있다.

家族關係 中에서도 價値의 傳達와 效果가 뚜렷한 것은 父母子女關係로서, 子女에게 있어 父母는 최초의 關係이므로<sup>3)</sup> 父母의 子女에 대한 影響力은 強力하며 子女들이 父母로부터 社會的 態度, 信念, 價値 등을 習得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Clausen<sup>4)</sup>, Maccoby<sup>5)</sup> 등의 社會學習 理論家들에 의하면 父母는 子女에게 어버이됨의 혹은 社會的인 目標를 향한 動機를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文化的인 目標나 價値를 傳達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父母와 子女間에는 價値에 있어서 높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요사이의 社會行動科學에서 世代間 過程은 個人的 發達이나 社會變化 측면에서 모두 理論의 中心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過程에 대한 지식은 크게 알려진바가 없다.

Troll 등<sup>6)</sup>은 家族員이 여러가지 價値領域, 좁혀 말하면 多數의 人性特性에서 서로 비슷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Thomas,<sup>7)</sup> Bengston<sup>8)</sup> 등도 父母의 價値가 兒童의 價値에 傳移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社會가 分化되고 家族의 役割을 代行하는 여러가지 다른 代理者들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父母의 影響은 점차 감소하므로 價値의 傳達이 既定事實化될 수 없다는 이론도 제기되었다.<sup>10)</sup> 즉 家族에 있어서 態度의 傳移는 이제 고정된 假定이라 할 수 없고 試驗해볼만한 假說로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家族에게 있어서 環境은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그 家族의 價値形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점차 家族은 變化하고 있고 道德的, 宗教的 理想의 가장 重要한 터전으로서의 위치를 喪失해가고 있다.<sup>12)</sup> 家族은 이제 子女의 生活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競爭者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人間의 意識生活에서 빼놓을 수 없는 價値의 問題가 家族의 變化와 더불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父母子女間의 價値의 類似성과 傳達實態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變因들과의 關係를 살펴봄으로써 父母子女關係의 再構成과 나아가 家族問題를 해결하고 現代家族의 位置를 파악하는 등의 發展의 方向을 모색하는데 本研究의 目的을 두고자 한다.

이처럼 父母子女間 價値觀의 傳達와 持續성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本研究의 目的이므로 研究結果에서도 주로 價値觀의 內容보다는 世代間 類似性에 의한 價値傳達의 정도를 증점적으로 다루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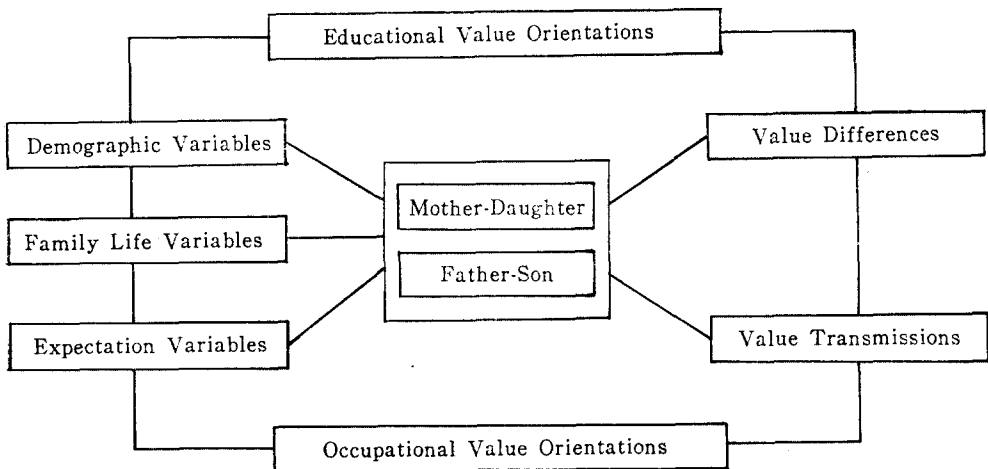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Research Model

한다. 그리고 子女에 대한 父母의 영향은 특히 成就, 職業, 教育價値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sup>13)</sup> 本 研究에서도 父母子女의 教育和 職業 價値觀을 主 研究內容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同一視를 통하여 특히 同性父母子女間의 價値傳達이 잘 일어나므로<sup>14, 15)</sup> 母女, 父子關係를 重點적인 研究對象으로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 研究問題로서 제기될 것은 다음과 같다.

1. 父母子女의 教育和 職業 價値觀의 一般的 傾向은 어떠한가? 또 母女, 父子間 集團的 差異는 有意한가?
2. 母女, 父子間의 價値觀의 相關도는 어느 정도인가? 즉 價値의 傳達은 잘되고 있는가?
3. 父母子女間의 價値觀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들의 相互相關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 위의 結果에 따른 각 특성별(인구통계학적, 家族生活, 期待) 變因 集團은 子女의 價値觀에 相互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 II. 理論的 背景

哲學에서 시작한 價値觀의 研究는 근래에 와서 人文科學이나 社會科學 分野의 새로운 爭點이 되고 있다. 哲學者들은 價値나 價値觀을 理論的, 觀念的으로만 다루려고 하였으나 科學的 研究의 可能性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J. Dewey 를 비롯한 실험주의자들은 價値 및 價値觀의 研究가 經驗科學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sup>16)</sup>

### 1. 價値傳達(Value Transmission)

文化的 繼承이 계속되려면 價値는 반드시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傳達되어야 한다. 社會化 理論은 항상 家族을 價値傳達에서의 가장 중요한 mechanism 으로 강조한다.<sup>17)</sup> 따라서 父母子女間에는 이와같은 家族의 傳達로 인해 價値觀이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는 假定을 할 수 있다. 이러한 世代間 類似성은 곧 世代間 持續성을 의미한다.<sup>14)</sup>

父母子女間 價値의 類似성과 관련된 論文들을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Troll 등의 研究<sup>7)</sup>와 더불어

Turner 등<sup>18)</sup>은 政治, 宗教, 自我實現 등 全般的 人生觀 研究에서 世代間 類似성을 발견하였고 Kallish 와 Johnson<sup>19)</sup>은 三世代 女性研究에서 社會學的 問題의 類似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Hill<sup>20)</sup> 역시 人生觀과 子女觀에 관한 三世代 研究에서 價値觀의 類似성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급속도로 變化하는 現代社會에서 子女는 父母와 서로 다른 價値觀을 갖게 되기 쉬운데 Troll 등의 또다른 연구<sup>6)</sup>에서는 世代 研究에서 제기되는 主要問題로서 世代間에는 宗教, 政治 이외에는 큰 類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Bormann 등<sup>21)</sup>은 子女에 대한 價値에 있어 母女間의 價値觀의 相關關係가 희박하다고 하였고, Leavy 등<sup>22)</sup>도 父母世代와 祖父母世代의 價値觀의 類似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Jessop 의 研究<sup>23)</sup>에서도 父母와 子女間의 일치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子女價値觀에 미치는 父母의 영향에 관한 많은 研究들은 價値傳達이 여러 變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Franklin 등<sup>24)</sup>은 父母의 高學歷이 子女에게 더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는 Smith<sup>25)</sup>도 동조하고 있다. 이처럼 주로 父母의 職業이나 教育, 所得 등이 父母의 價値를 결정짓는데 Bruce<sup>26)</sup>는 職業을 가진 어머니가 딸의 職業觀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고 Smith 등<sup>27)</sup>은 어머니의 特性들보다 실제로 어머니의 態度要因들이 딸의 態度를 결정짓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 Mortimer<sup>28)</sup>는 父의 職業이 所得을 통해 家族關係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파생되는 父와의 밀접성은 職業 價値觀을 전달시킨다고 하였다. 즉 父와의 밀접성이 職業價値傳達에 重要하다는 것이다.

### 2. 價値知覺(Value Perception)

父母子女間의 價値傳達에서 知覺이나 解釋은 決定的 要因으로 作用한다. 子女는 自身の 觀點을 발견할 수 없는 한 父母에게 同意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sup>10)</sup>

父母子女間 價値一致도가 낮은 경우는 文化傳達의 主要 agency 로서의 家族의 役割이 위협받게

되는데 價値觀의 父母子女間 知覺一致도가 實際一致도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兒童의 價値觀은 實際 父母位置보다 父母位置에 대한 子女 自身の 知覺 中心으로 영향받는다. 그러므로 子女 價値觀이 子女의 父母知覺價値觀과 유사한데 이것은 子女가 父母 생각과 自身 생각이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Acock 등<sup>30)</sup>은 父母와 子女의 實際 價値觀의 一致도보다 父母의 價値觀과 子女가 知覺한 父母의 價値觀과의 一致도가 높다고 하였다. Smith는 또 다른 論文에서<sup>31)</sup> 父母子女間 一致는 적으나 子女는 父母 目標의 知覺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父母 價値觀의 understanding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또 Callon 등<sup>32)</sup>도 母女間 상관도는 낮으나 子女의 父母 知覺과 子女價値觀과의 相關도는 높다고 하였다.

本 論文에서도 以上과 같은 價値傳達와 價値 知覺의 理論의 背景을 토대로 여러 變因을 통한 父母子女間의 價値傳達 實態와 期待變因에서의 父母子女間 價値知覺과 實際 價値觀과의 關係를 파악하고자 한다.

### Ⅲ. 研究方法 및 節次

#### 1. 調査對象

調査對象者는 大學에 在學中인 男女 學生과 그 父母를 對象으로 하되 母女, 父子를 쌍으로 하여 調査하였다. 調査對象者는 서울, 광주, 목포 등 大中小都市別로 群集 標集하여 총600部(300쌍: 男女名 150쌍)를 배부한 결과 272部를 회수하여 이중 不完全한 자료를 제거하고 총 220部(110쌍: 男 56쌍, 女 54쌍)를 통계 처리하였다.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性格은 Table 1과 같다.

#### 2. 調査道具

調査道具로서 사용된 質問紙는 父母用과 子女用으로 大別되며 用語上的 差異로 인해 實際로는 父, 母, 아들, 딸用의 네가지 質問紙가 사용되었고 각 質問紙는 父子, 母女의 쌍으로 묶어 한 家庭內 居住하는 母女 또는 父子를 對象으로 調査되었다. 各 變因別 調査項目과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y	Frequency	f	%
Resident Place	Seoul	25	23
	Kwang-ju	45	41
	Mok-po	40	36
Parents' Age	Forties	47	43
	Fifties	57	57
Parents' Education	Primary School	20	18
	High School	68	62
	College	22	20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won	45	41
	More than 500,000 won	65	59
Father's Occupation	Agriculture	18	16
	Commerce	47	43
	Official	45	41
Mother's Occupation	Occupied	33	30
	Not Occupied	77	70

Table 2. Sources and Definitions of Independent Variables

Label	Variable Name	
S	Sex	Male, Female
E	Parents' Education	Primary, High, College
A	Parents' Age	Forties, Fifties
FO	Father's Occupation	Agriculture, Commerce, Official
MO	Mother's Occupation	Occupied or not
L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won or more
BO	Birth Order	First, Middle, Last
FC	Family Cohesiveness	Working or going out together - Often, Educational/Occupational Plans - Sometimes, Personal Problems - Seldom
CI	Parent-Child Communication I	
CII	Communication II	
PE	Parental Encouragement	
RP	Referent Power	Powerful or not
PCC	Parent-Child Closeness	close or not
PEE	Parental Educational Expectations	Great or not
POE	Parental Occupational Expectations	
CEE	Childs' Educational Expectations	
COE	Childs' Occupational Expectations	
PPEE	Perceived Parental Educational Expectations	
PPOE	Perceived Parental Occupational Expectations	

1) 獨立變因(Independent Variables)

① 인구통계학적 變因(Demographic Variables)으로는 父母用에 6項目(연령, 學歷, 母의 職業 有無, 居住地, 月 平均 所得額, 父의 職業 種類), 子女用에 3項目(연령, 居住地, 出生順位)이 設定되었다.

② 家族生活 變因(Family Life Variables)으로는 Jessop<sup>29)</sup>이 제시한 變因中 4項目(父母子女間 친밀도, 進學·職業進路 對話 I, 個人的 問題 對話 II, 격려·칭찬 정도)과 Firebaugh, Woodward, Daly 등<sup>30)</sup>이 제시한 1項目(가족 응집도), McDonald<sup>31)</sup>의 1項目(referent power)등 총 6項目이 設定되었다. 以上 家族生活 變因의 신뢰도는 Internal Consistency Method에 의해 Cronbach's  $\alpha = .692$ 로 나타났다.

③ 期待 變因(Expectation Variables)으로는

Howell 등<sup>32)</sup>이 제시한 變因中 父母用으로는 2項目(子女에 대한 學業期待와 職業期待), 子女用으로는 4項目(自身の 學業期待와 職業期待, 自身에 대한 父母의 學業期待 知覺, 職業期待 知覺)등이 設定되었다. 以上 變因들의 Cronbach's  $\alpha = .711$ 이었다.

以上과 같은 變因들 中 통계에 사용된 變因들의 총체적 分類, 說明은 Table 2와 같다.

2) 價値觀 尺度(Value Orientation Scale)

本 研究에서는 Firebaugh, Weaver, Warren 등<sup>33)</sup>이 제작한 敎育과 職業價値 尺度를 사용하였다. 이 Scale에서의 價値觀은 4가지 영역으로 區分되는데 그 分類과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 價値觀 I : 抽象性 對 具體性(Abtractness-Concreteness).....現實의인 問題보다 敎育이나 職業에서의 知的인 過程을 강조할 때는 抽象性向, 實

體的이고 現實의인 것을 강조할 때는 具體性向.

② 價值觀 II : 調整性 對 運命性(Control-Fatalism)……自身的 能力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 教育이나 職業에서의 스스로의 주도적인 役割을 강조할 때는 調整性向, 運 동에 의한 不可避性을 강조하여 自身の 주도적인 能力에 대한 믿음이 약할 때는 運命性向.

③ 價值觀 III : 平等性 對 權威性(Equalitarianism-Authoritarianism)……權利 義務 등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의 公平性을 강조할 때는 平等性向, 權力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복종성을 강조하거나 性差를 인식할 때는 權威性向.

④ 價值觀 IV : 統合性 對 疏遠性(Integration-Alienation)……集團 즉 家族, 社會, 學校 등에 대한 협조 感覺이 강하고 他人과의 유대의식을 중요시할 때는 統合性向, 個人的이고 集團에 대한 不一致性이 강하거나 他人과의 關係를 강조하지 않을 때는 疏遠性向.

各 問項은 모두 Likert type 5점 尺度로 構成되었고 총 問項 수는 28 問項이다.

### 3. 資料蒐集과 處理

1987年 3月 23일부터 10日間 30쌍을 對象으로 에 비조사 결과 일부 수정 보완한 質問紙로 1987年 4月 13일부터 5月 22일까지 資料蒐集하였다.

資料處理는 4가지 分析方法을 사용하였는데 統計方法에 대해 먼저 論議할 것은 世代間 價值 研究에서 相關係數는 pair correspondence 측정에 가장 적절한 統計値라 할 수 있다. 단 價值傳達는 반드시 父母에게서 子女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좀더 精確한 決定因子를 알기 위해서는 중다 회귀분석의 사용이 적절하다. 그러나 공변량이 반드시 價値의 一致나 類似性을 나타내주는 것은 아님을 제한점으로 전제해야 한다.<sup>6)</sup> 또 pair와 group의 一致性은 區別되어야 한다.

本 研究에서 使用한 統計方法은 첫째, 價值觀의 一般的 傾向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표준 편차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父母子女 集團間 差異를 검증하기 위해 dependent samples t-test를 하였다. 둘째, 變因間 相關度와 父母子女間 價值觀의 相關度를 알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r)을

使用하였다. 셋째, 價值觀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들의 相對的 影響을 파악하기 위해 量多回歸分析을 사용하였다. 以上과 같은 統計的 處理는 SPSS를 이용하였다.

## IV. 研究結果

### 1. 價值觀의 一般的 傾向과 差異分析

價值觀의 一般的 傾向과 集團間 差異는 Table 3과 같다.

各 점수는 문항 합산 점수의 平均으로서 價值觀 I에서는 教育價値에 있어서의 母의 具體性이 가장 높고 職業價値에서는 父의 具體性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父, 아들등 男性의 具體性이 職業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고 全般的으로는 教育價値는 具體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職業價値는 抽象性이 높게 나타났다.

價值觀 II에서는 教育에서 子女의 運命性向이 높게 나타났고 職業에서는 별 差異가 없으나 全般的으로 教育보다 職業價値의 運命性向이 높게 나타났다.

價值觀 III에서는 父母의 教育價値觀이 비교적 子女에 비해 權威性이 강하고 職業에서는 女性보다 男性의 權威性向이 높게 나타났다. 全般的으로 教育價値觀은 權威性向이 강하고 職業價値觀은 平等性向이 강하다.

價值觀 IV에서는 教育에서 女性보다 男性의 疏遠性向이 더 높고 특히 아들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全般的 傾向은 統合性向이 강한 편이다. 職業에서는 대체적으로 教育보다 높은 疏遠性向을 보이고 있다. 以上의 結果를 先行 研究<sup>3,5)</sup>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教育의 抽象性, 運命性向이 강하고 統合性向이 강하며 職業價値觀에서도 運命性, 統合性向이 강한 편이다.

父母 子女集團間의 價值觀의 差異를 보면 女性集團間이 男性集團間보다 有意한 差異가 더 많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價值觀 III에서는 有意한 差異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價值觀 IV는 有意한 差異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父母世代的 權威性向이 두드러지며 子女世代와는 教育價



Table 4-2. Significant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Parent								Child									
Label	*MO	*I	*FO	FC	CI	CII	PE	PCC	POE	Label	CI	CII	PE	RP	PCC	COE	PPOE
S		.25*					.32**	.23*	.28*	BO							
A									.22*	FC	***	**	*				
E	*	.23	***							CI	1.00	.52	.35		.29	*	
M	1.00	.37	.45							CII	***	1.00	***		.40	***	
I	**	1.00	.41							PE	**	***	1.00	*	.26	.22	*
FO	***	***	1.00	.21*						RP				*	1.00	.38	**
FC				1.00	.27*					CEE						***	**
C				.27	1.00	***	**			COE						.51	.33
						***	***			PPEE						1.00	.31
						.58	1.00	.53									***
R								***									.46
PEE								.41	***								.45

\*p<.05      \*\*p<.01      \*\*\*p<.001  
\*dummy variables

Table 4-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Expectation Variables

Label	CEE	COE	PPEE	PPOE
PEE	.043	.123	.231	.183
POE	.035	.217	.115	.333

지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4-2는 變因들간의 相關도를 父母子女別로 나타낸 것으로 有意한 相關係數만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變因들은 實際 統計上으로도 인구통계학적 變因, 家族生活 變因, 期待變因 등으로 相互 관련되어 大別됨을 알 수 있다. 集團內에서 中位相關 以上の 비교적 높은 相關도를 나타내어 變因集團의 特性을 대표하는 變因은 인구통계학적 變因에서의 父의 職業, 家族生活 變因에서의 個人問題 對話程度등의 變因이다. 父의 職業이 인구통계학적 變因中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價値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先行 研究<sup>23)</sup> 와도 一致하는 것으로 所得이나 家族關係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家族生活 變因 中에서는 世代間的 個人問題에 대한 對話程度가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Table 4-3은 期待變因에서의 各 變因間 相關度

를 나타내는 것으로 先行 研究에서와 같이<sup>22, 24)</sup> 父母 期待와 子女 期待의 一致度보다 父母 期待와 父母期待에 대한 子女知覺의 一致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Table 4-2와 병행하여 比較해 보면 子女는 父母의 實際 期待보다 自身이 知覺한 父母 期待에 더 一致하는 경향이 있다.

### 3. 子女의 價値觀에 미치는 變因들의 영향 分析

各 變因 集團 特性別로 子女의 價値觀에 多樣한 變因들이 相對的으로 相互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나타내주는 Table 5를 보면 父母의 教育 수준이 子女의 價値觀(특히 職業)과 比較적 有意度가 높은 相關을 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先行 研究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sup>24, 25)</sup> 또 母의 職業有無가 子女의 職業價値觀과 有意相關이



Table 5. Multiple Regression (beta) among Variables

Value Orien.	Category	I		II		III		IV	
		Education	Job	Education	Job	Education	Job	Education	Job
Demographic	A	-.125	-.055	.130	-.115	-.100	-.082	.321***	-.165
	E	.109	.231**	-.080	-.065	.175	.389***	-.144	.267***
	MO	.080	.212**	-.088	.209**	-.065	-.089	-.125	.228**
	I	.186*	.277**	-.071	-.119	-.173	.232**	-.142	.064
	FO	.207**	.061	.061	-.125	.217**	.055	.153	-.125
	EO	.164	.074	.116	.199*	.109	.237**	-.205**	-.054
R <sup>2</sup>		.165	.181*	.136	.184*	.183*	.234**	.204**	.208**
Family Life	FC	-.084	.089	.345***	.241**	.078	-.073	.055	-.071
	CI	.119	-.084	-.102	-.194*	-.148	.090	-.095	.254**
	CII	-.250**	-.163	.052	.151	-.237**	-.181*	-.171	.189*
	PE	.400***	-.141	-.115	-.081	.202**	-.163	-.069	-.157
	RP	-.187*	.235**	.148	-.203**	.102	-.177	-.243**	.124
	PCC	.076	.150	-.189*	.102	-.087	-.100	.058	-.141
R <sup>2</sup>		.232**	.152	.214**	.178*	.182*	.132	.188*	.181*
Expectation	PEE	.132	-.189*	-.150	.221**	.082	-.111	.116	.059
	POE	-.169	-.069	.060	.086	.246**	.205**	.215**	-.175
	CEE	.315***	.186*	.176	.063	.182	.119	.110	.077
	COE	-.062	-.112	-.082	-.209**	-.110	-.184*	.085	.098
	PPEE	.101	.089	-.083	.075	.078	-.075	-.115	.243**
	PPOE	.093	-.059	.199*	.087	-.089	-.144	-.124	-.124
R <sup>2</sup>		.227**	.153	.165	.194*	.187*	.153	.164	.179*

\*p<.05      \*\*p<.01      \*\*\*p<.001

많은 것 역시 先行 研究와 일치한다.<sup>26)</sup> 그리고 거의 有意相關을 보이지 않는 父母子女間 친밀도는, 친밀도와 같은 家族關係特性은 世代傳達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Troll 등의 研究<sup>27)</sup>와 一致한다.

가장 相對的 有意度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人구 통계학적 變因은 教育價値觀보다 職業價値觀에서의 相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人구 통계학적 變因은 子女의 職業價値觀에 가장 큰 影響력을 행사한다.

###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의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價値觀의 一般의 傾向은 教育에 있어서는 母의 具體性이 강하고 職業에서는 男性의 具體性이 강하다. 이것은 男性이 職業에 있어 보다 現實的인 價値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全體의으로는 教育價値觀이 職業價値觀보다 具體性이 강하다. 또 職業價値觀에서는 運命性向이 높게 나타나고 父母, 男性의 權威性向이 두드러진다. 全般의으로 教育은 權威性向, 職業은 平等性向이 높다. 또 全體의으로는 統合性向이 강하나 아들들의 教育觀은 疏遠性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外국의 先行研究<sup>28)</su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運命性, 統合性등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父母子女 集團別 價値觀의 差異는 女性(母女)集

團이 더 差異가 많이 나타나 女性集團의 世代差가 더 큼을 알 수 있고 全體의으로는 父母世代的 權威性向이 높고 教育에서의 世代差異가 많이 나타난다.

둘째, 父母子女의 價値觀의 相關度는 母女間이 父子間보다 더 一致하여 父子間보다 母女間의 價値傳達이 더 잘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先行研究<sup>21)</sup>와도 一致하나 그 정도는 높지 않으며 變因들간의 相關度에서는 각 變因 集團別 有意度를 보이는데 특히 先行研究<sup>20)</sup>에서와 같이 父 職業, 父母子女間 對話 變因등이 두드러진 相關度를 보인다.

셋째, 各 變因 集團別 相對的 影響의 정도를 보면 선택적인 影響력을 행사하는데 특히 父母의 教育 수준이 子女의 價値觀에 비교적 相關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先行研究<sup>24, 25)</sup>와도 一致한다. 이 밖에 다양한 變因들이 子女의 價値觀에 影響을 주고 있는데 인구통계학적 變因이 특히 子女의 職業價値觀에 폭넓은 影響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結果와 더불어 父母子女 期待의 一致度에서는 先行研究<sup>32, 34)</sup>에서와 마찬가지로 子女의 경우 父母의 實際 期待보다 自身이 知覺한 父母 期待에 더 一致하며 父母 期待와 子女 期待의 一致도보다 父母 期待와 子女가 知覺한 父母期待와의 一致도가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과 같은 研究 結果에서 結論을 내리자면 먼저 父母子女間의 價値觀의 傳達은 母女間에 다소 잘 일어나나 그 정도는 미약하여 現代家族에서의 世代間 價値傳達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子女의 價値觀에 影響을 주어 궁극적으로 價値 變化를 가져오거나 父母子女 傳達의 매개변수로 作用할 수 있는 變因은 父母의 教育 수준 등의 父母變因임을 살펴 볼 때 價値觀에서의 父母傳達 내지 教育은 여전히 父母의 影響력 아래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父母子女間의 世代間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家庭教育을 위해서 父母는 여전히 中心的인 役割을 행사할 수 있으며 家庭內 發生하는 父母 子女間 問題의 해결책도 父母 안에서 먼저 찾아야 함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以上과 같은 研究에서 제한점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첫째, 母子, 父女 등의 cross-sexual relation-

ship 측면의 研究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각적인 父母子女 傳達의 해석이 불가능하였다는 점과 둘째, 친구나 社會文化的 環境등 子女의 價値觀에 影響을 줄 수 있는 여러 要因들과의 복합적인 關係 研究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變因 해석이 家庭內로 축소되어 버렸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점들은 앞으로의 계속적 研究를 통해 보충되어야 하며 특히 調查對象을 쌍으로 할 때의 응답자의 성실성과 회수율 증가를 위한 研究方法의 새로운 開發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 參 考 文 獻

1. Gross, I.H., E.W. Crandall, and M.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Meredith Co., 1973, p.115.
2. 鄭元植, 情意的 教育, 培英社, 1969, p.120.
3. Bossard, J.H., E.S. Boll, The Sociology of Child Development,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1966, p.62.
4. Clausen, J.A., "Perspectives on Childhood Socialization." In J.A. Clausen(ed.), Socialization and Society, Boston:Little, Brown, 1968.
5. Maccoby, E.E., "The Development of Moral Values and Behavior in Childhood." In J.A. Clausen(ed.), Socialization and Society, Boston: Little, Brown, 1968.
6. Troll, L., V. Bengsotn, "Generations in the Family." In W.R. Burr et al. (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1979, p.127.
7. Troll, L., B.L. Neugarten, and R.J. Kraines, "Similarities in Value and othe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Merrill-Palmer Quarterly, Vol.15, 1969, pp.323~336.
8. Thomas, E.L., "Political Attitude Congruences between Politically Active Parents and College-age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3, 1971.

- pp.375~386.
9. Bengston, V.L.,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0, 1975, pp.358~371.
  10. Furstenberg, F.F., "The Transmission of Mobility Orientation in the Family," *Social Forces*, Vol.49, 1971, pp.595~603.
  11. Connell, R.W., "Political Socialization in the American Family,"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6, 1972, Bormann and Stockdale, "Values of Childr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8, 1979, p.58에서 재인용.
  12. Aiken, H.D., *The New Morals*, Harper's 236, 1968, p.62, I.H. Gross et a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Meredith Co., 1973, p.122에서 재인용.
  13. Troll, L., V. Bengston, op. cit., p.146.
  14. Moss, N.E., S.I. Abramowitz, "Beyond Deficit-filling and Developmental Stak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4, 1982, p.357
  15. Lamb, M.E., "Parental Influences and the Father's Role," *American Psychologist*, Vol. 34, 1979, p.941.
  16. 黃應淵, 大學生의 價値觀 및 연관된 變因에 관한 研究, 梨大 大學院, 1975, p.14.
  17. Hoge, D.R., G.H. Petrillo, and E.I. Smith, "Transmission of Religious and Social Values from Parents to Teen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4, 1982, p.569.
  18. Thurner, M.J., D.A. Spence, and M.A. Lowenthal, "Value Congruence between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6, 1974, pp.308~320.
  19. Kalish, R.A., A.I. Johnson, "Valu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4, 1972, pp.49~54.
  20. Hill, R., *Family Development in Three Generations*, Cambridge: Schenkman, 1970.
  21. Bormann, C., D.F. Stockdale, "Value of Children: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8, 1979, p.58.
  22. Leavy R.L., O. B. Hough, "The Value and Cost of Children Cross-generational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Par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2, 1983, p.57.
  23. Jessop, D.J., "Family Relationships as Viewed by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1981, pp.95~107.
  24. Franklin, J.L., J.E. Scott, "Parental Valu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2, 1970, pp.406~409.
  25. Smith, T.E., "Adolescent Agreement with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Educational Goal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3, 1981, p.85.
  26. Bruce, J.A., "The Role of Mothers in the Social Placement of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6, 1974, p.492.
  27. Smith, M.D., G.D. Self, "The Congruence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2, 1980, p.105.
  28. Mortimer, J.T., "Social Class, Work and the Family: Some Implications of the Father's Occupation for Familial Relationships and Sons' Career Deci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8, 1976, p. 241.
  29. Cashmore, J.A., J.J. Goodnow, "Agreement between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Vol.56, 1985, p.493.
  30. Acock, A.C., V.L. Bengston, "Socializa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Actual versus Perceived Similarity Among Parent and

-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2, 1980, p. 501.
31. Smith, T.E., "The Case for Parental Transmission of Educational Goals: The Importance of Accurate offspring Percep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4, 1982, p. 661.
  32. Callon, V.J., C. Gallois, "Perceptions about Having Children: Are Daughters Different from Their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5, 1983, p.607.
  33. Firebaugh, F.M., J.C. Woodward, and R.T. Daly, "Homemakers' Value Orientations to Education and Job,"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4, 1975, pp.90~102.
  34. McDonald, G.W., "Parental Identification by the Adolesc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9, 1977, pp.705~719.
  35. Howell, F.M., W. Frese, "Adult Role Transitions, Parental Influence, and Status Aspirations Early in the Life Cour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4, 1982, pp. 35~49.
  36. Firebaugh, F.M., C.R., Weaver, and R.D. Warren, "Reliability of Value Orientation Sca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4, 1975, pp.74~89.